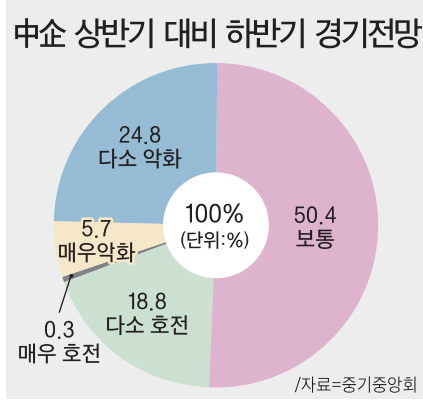


# 하반기 中企 경기전망 ‘악화’ 우세... 세금·부담금 인하 절실

중기중앙회, 경영애로·경기전망 조사 31% ‘악화’ 예상, ‘호전’ 19% 그쳐 SBHI 91.6으로 상반기보다 양호 中企 75% ‘인력운용 계획 변화없다’



올 하반기 경기에 대해 ‘호전’보다 ‘악화’를 예상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가장 절실한 정부정책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를 지목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 사이에 전국의 중소기업 912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1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30.5%(매우 악화 5.7%+다소 악화 24.8%)가 ‘악화’를 예상했다. 반면 ‘호전’될 것이라 답변은 19.1%(다

소 호전 18.8%+매우 호전 0.3%)에 그쳤다. ‘보통’이란 답변은 50.4%에 달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는 전망치는 지난해 하반기 당시 중소기업들이 예상한 올해 상반기 전망치보다 다소 나아진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대해 ‘악화’가 45.2%로 ‘보통’(44.8%) 전망보다 우세했다. ‘호전’도 고작 10%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전망 지수(SBHI)도 91.6으로 지난 상반기

〈하반기 업종별 업황전망(SBHI)〉

| 구분   | 개선전망 업종 순(%)                | 악화전망 업종 순(%)           |
|------|-----------------------------|------------------------|
| 제조업  | ①의료용물질및의약품(114.3)           | ①가구(61.9)              |
|      | ②식료품(107.1)                 | ②종이및종이제품(71.4)         |
|      | ③음료(107.1)                  | ③가죽가방및신발(76.2)         |
|      | ④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104.8)      | ④차금속(78.6)             |
| 서비스업 | 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112.2) | ①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4) |
|      | ②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06.7)    | ②운수업(77.8)             |
|      | ③부동산업및임대업(100.0)            | ③교육서비스업(80.0)          |
|      | ④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100.0)       | ④도매및소매업(86.7)          |

자료=중기중앙회

당시의 77.6보다 양호해졌다. 현업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전망은 많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 때보다 나아진 셈이다.

‘호전’을 예상한 업종은 제조업의 경우 ▲의료용물질및의약품(114.3) ▲식료품(107.1) ▲음료(107.1)가 기준점인 100을 넘었고, 서비스업에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11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06.7) ▲부동산업및임대업(100.0)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경기침체)’이 51.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선 ▲원자재 가격 상승(43.8%) ▲자금조달 곤란(20.1%) ▲주 52시간제 확대(20.1%) ▲인력부족(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이 74.6%가 하반기 인력 운용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인력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23.6%로 ‘줄이겠다’(1.9%)는 곳보다 많았다.

채용 계획이 많은 곳은 제조업의 경

우 음료 분야가 5.29명으로 두드러졌고, 서비스업에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5.5명으로 많았다.

경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68.9%) ▲금융지원(대출 금리 우대, 대출자격 완화)(46.3%)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29.6%) ▲최저 임금 동결(인하)(27.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상반기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에 코로나 백신접종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물류대란 등 3중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지역특화·유망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진공, 130개 기업서 440명 채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나섰다.

중진공은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KOSME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세 번째 테마인 지역특화·유망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KOSME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비대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올해 6개 테마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테마인 지역특화·유망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영위기업 등 130여 개사가 참가해 440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참가기업 확인과 입사지원은 5일부터 KOSME 내일에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에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해 구직자의 이해를 돕고, 현직자 카운슬링을 통해 지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궁금증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쌍용C&E, 국내 신용등급 ‘A0’ 안정적 평가

시멘트업계 유일 3대 신평사서 ‘A0’ ‘투자 바탕 성장·우수성 인정받아’

쌍용C&E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0(안정적)’를 받았다.

이는 국내 시멘트업계에서 유일하다.

쌍용C&E는 최근 한국기업평가 시행하는 정기평가에서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A-(긍정적)에서 A0(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운영효율 개선을 통한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의 꾸준한 성장 ▲우수한 영업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재무안정성 ▲사업환경 개선과 경영

효율 제고에 따른 수익 창출력 향상 전망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쌍용C&E는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0(안정적) 신용등급을 받은 후 이번 한국기업평가까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국내 시멘트업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쌍용C&E는 최근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해 순환자원 사용량 확대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마무리했다. 또 폐열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제조원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연결기준 17%의 영업이익률과 250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규모도 425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쌍용C&E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신용등급도 지속 상향 중이다. 지난 2015년 BBB+ 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017년 A- 등급, 그리고 올해 A0 등급까지 대외 신용등급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쌍용C&E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원가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쌍용C&E의 성장가능성과 우수한 수익성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친환경 투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교원KRT, 여름맞이 ‘백신백세’ 이벤트

여행일 백신접종자 300명에 상품권

교원그룹 계열인 교원KRT가 시니어 전문 여행 브랜드 ‘여행다움’을 통해 여름맞이 ‘백신백세’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교원KRT에 따르면 여행다움은 코로나 백신 접종 장려와 ‘백신 접종 후 건강하고, 즐겁게 여행하자’는 의미를 담아 2가지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백신 접종한 사람 여행가고선 물받고’ 이벤트는 여행 당일 백신 접종 확인증을 지참한 여행객 중 총 3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여행 출발일 기준 1차 이상 백신 접종여행자를 대상(모바일 또는 지류 확

인증 지참)으로 매일 선착순 100명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다움은 이달 10일까지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백신 접종 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국내의 지역명과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종료 후 100명을 추첨해 일회용 마스크 1박스를 증정할 예정이다.

교원KRT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백신 접종으로 보다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여행다움이 마련한 재미있는 이벤트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롯데 메종 동부산에 매장 오픈

시몬스가 롯데쇼핑 최초의 리빙 전문관인 롯데 메종 동부산에 ‘시몬스 롯데몰 메종 동부산점’을 열었다.

4일 시몬스에 따르면 롯데몰 메종 동부산은 동부산 최대 관광단지인 기장군 ‘오시리아 테마파크’에 연면적 1만3520㎡(4090평), 단독 3층 건물로 문을 연 대형 리빙 전문 쇼펍물이다.

시몬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38개 국내의 대표 브랜드가 들어섰다. 부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롯데몰 메종

동부산 이외에도 부산 최대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반얀트리 부산’ 등 고급 리조트의 완공과 운영이 예정돼 있다.

‘시몬스 롯데몰 메종 동부산점’은 롯데몰 메종 동부산 2층에 자리한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체험 중심 쇼핑환경을 선사한다. 160여 평의 여유로운 매장 공간에는 20여 종 매트리스와 프레임이 비치됐다. 소파, 베딩, 퍼니처 등 다채로운 제품군을 구비해 브



시몬스 침대, ‘롯데 메종 동부산점’ 내부 전경.

랜드 경험을 극대화했다.

특히 시몬스 침대의 최상위 라인인 ‘뉴티레스트 블랙’의 여러 모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 기술력의 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맹비난...“이념 취해 국민에 고통 줘”  
▲이재명 독주 속 ‘빅3’ 들어온 박용진...지지율 7.7% 3위 /사진 뉴시스

▲1인당 25만원 지원금,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는다...이르면 8월 하순부터  
▲검찰과 갈등 공수처...윤석열·조희연 수사 쟁점들



▲양자대결시, 이재명 44.7%, 윤석열 36.7%...오차범위 밖(8%p) /사진 뉴시스  
▲한은 “미국 하반기 7.3% 성장...높은 저축률에 보복소비 폭증할 듯”